

# 金融開放 앞둔 銀行의 전산화 方向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UR협상, OECD가입과 관련하여 서  
비스산업개방 요구에 따른 금융산업개방과 자본거래자유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머지않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금융정책관련당국에서는 經營合理化  
의 일환으로 경영관리비의 가장 큰 몫을 점유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향후 수년간은 퇴직인원의 절반 정도만 채용하  
여 점포신설에 따른 직원의 충원과 업무량 증가와 有故人力의  
대책에 충당, 전반적인 인력을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  
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은행의 1인당 비용은 선진  
국 대비 많은 반면 1인당 예금 이익등은 적어 이의 改善없이  
개방하게 되면 도저히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웃 일본의 예를 보아도 금리자유화에 따른 預貸마  
진의 축소 투자이익의 감소등으로 구조적인 수익감소와 금융  
자율화 및 국제화에 따른 경영환경의 악화로 지난 4월 1일 일  
본도시은행중 교와와 사이타마은행이 합병했다. 최근 1년간  
두번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본부부서의 축소와  
국내외지점의 통폐합으로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자구  
책이다. 특히 합병에 따른 가장 큰 비용절감효과는 전산화투  
자에 있다고 한다.

즉 양은행이 향후 3년간 전산화관련투자를 각각 추진할 경



趙常治  
한국의환은행 조사역

우 2천억엔에 달하지만 공동추진하면 1천4백억엔으로 가능하여 6백억엔의 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두 은행의 89년도 경상 이익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당국에서는 地方銀行의 電算 시스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중은행들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산시스템개발의 비용절감 방안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선진은행들의 연중 무휴 24시간 서비스 진출에 대비하여 국내외 네트워크시스템을 보완하고 가정과 기업을 네트워크화 하여 최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비용의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각 은행이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개발 방법만으로는 어려움이 크므로 컴퓨터 메이커와 은행들이 단결하여 최소의 비용투입으로 가능한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